**2016 GS칼텍스 성장전략**

GS칼텍스는 2014년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저유가와 지속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디플레이션 우려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GS칼텍스는 △ 사업다각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 V-Project 추진을 통한 내부 경쟁력 강화 △ R&D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 협력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등 네 가지 기본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 사업다각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GS칼텍스는 석유사업 부문 고도화, 석유화학 및 윤활유 사업의 확대, 재무건전성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일 78만 5천배럴의 원유정제시설 및 27만 9천 배럴의 등∙경유 탈황시설 등 최첨단 자동화 생산 설비에서 고품질의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일 27만 4천 배럴의 국내 최대 규모의 고도화 처리 능력을 갖추어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방향족 사업은 꾸준한 원가 절감 및 공정 최적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폴리머 사업 분야에서 2006년 중국, 2011년 GS칼텍스 체코, 2013년 경남 진주, 2016년 멕시코 복합수지 생산법인 설립(2017년 가동 예정) 등 국내외 생산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복합수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윤활기유 사업에서도 고급 Base Oil인 Group III 제품 생산량을 증대하여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윤활유 사업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인도, 러시아, 동남아 등 해외 윤활유 시장에 진출하였다.

GS칼텍스는 다양한 경영 개선활동을 통한 원가절감 및 수익 확보 노력을 통해 회사의 차입금 규모 및 부채비율을 꾸준히 감소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향상시켜 왔다.

**🞎 V-Project 추진을 통한 내부 경쟁력 강화**

GS칼텍스는 정유, 석유화학, 윤활유 등 기존 사업의 Value Chain 전반을 철저히 분석하여 원가절감 및 수익확보를 도모하는 전사적 차원의 개선 활동으로 2013년부터 V-Project를 시행해 오고 있다.

V-Project는 2013년 ‘고도화 시설(Heavy Oil Upgrading) 최적 운영’을 위한 Feed 조성 최적화 및 반응기 온도 상향 등 약 40여 개의 세부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 활동을 진행했다. 2014년에는 ‘유틸리티 및 에너지 비용 효율화’와 ‘석유화학 공정 최적 운영’으로 개선 영역이 확대되었다. 2015년에는 원가 절감및 수율 향상을 통한 지속적 수익성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Crude 도입 등 Feedstock 경쟁력 강화’ 등 분야에서 개선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단기 수익성 향상 활동’과 ‘지속적 수익 창출 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 R&D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GS칼텍스는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손익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케미칼 분야의 일부 제품들은 상업화를 위한 기술검증 및 신규 용도 발굴 등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폴리머 사업분야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특수소재 관련 R&D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여 신규시장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ㅇ 바이오케미칼 분야

바이오케미칼이란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된 당을 원료로 미생물에 의한 발효를 통해 생산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GS칼텍스는 2007년부터 바이오케미칼 연구를 시작하여 현재 기존 석유화학 기반 케미칼 대비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화장품, 헬스케어, 농약 등의 분야에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특수 케미칼 생산 연구 등 바이오케미칼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별첨 참조>

ㅇ 소재사업 분야

GS칼텍스는 소재사업 분야의 인프라와 기술역량을 활용한 새로운 연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저가의 부산물을 고수익화할 수 있는 신규 소재 개발연구, 기존 소재에 차별화된 기능을 부여하는 신소재 연구, 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 중합기술 연구 등을 진행하여 고기능/친환경 제품에 대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ㅇ 탄소섬유 LFT 상용화 및 공급 확대

GS칼텍스는 LFT(Long Fiber Reinforced Thermoplastic, 장섬유강화 열가소성수지)생산기술을 바탕으로 탄소섬유에 나일론 등 플라스틱과 첨가제를 배합하여 강성과 내충격성이 우수하고 부품 변형 가능성을 최소화한 탄소섬유 LFT 복합소재를 개발하여 자동차용 선루프 프레임 소재로 공급하고 있다.

GS칼텍스 폴리머기술개발팀은 2014년 탄소섬유 LFT 소재 개발 및 양산에 성공, 현대자동차그룹의 단독 공급자로 선정되어 기아자동차 올뉴소렌토 차종에 해당 소재를 공급하였다. 2015년에는 고객사로부터 소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신형 투싼, 스포티지, K5, K7 등 12개 차종으로 소재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 쑤저우 공장과 진주 복합수지 공장에 탄소섬유 LFT 생산설비를 증설하여 연간 2만 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 협력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GS칼텍스는 협력사와 함께하는 지속가능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지속가능한 조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사 선정시 윤리적, 환경적, 사회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 등 전략적 상생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자금/기술 개발/경영 컨설팅/교육 및 훈련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GS칼텍스는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매대금의 경우 100% 현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수취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으며, 동반성장 협약 체결 협력사를 대상으로 금융권과 공동으로 1,000억 원의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우대금리 대출을 지원하였다.

기술교육 지원센터를 통해 GS칼텍스 여수공장 정비용역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역량, 직무역량,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10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해 △ 수익성을 고려한 중장기 설비 투자△ V-Project를 통한 기본 수익력 강화 △ 차별화된 기술 및 제품개발 △ 협력사 동반성장을 통한 지속가능 조달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GS칼텍스 미래 성장동력 ‘바이오부탄올’**

GS칼텍스는 장기화 되고 있는 저유가와 지속되는 글로벌 경기침체, 디플레이션 우려 등 국내외 시장의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GS칼텍스는 정유, 석유화학, 윤활유 등 기존사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원가절감 및 수익 확보를 위한 설비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경쟁력 개선활동을 보다 세분화하여 추가적인 개선영역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GS칼텍스는 회사가 보유한 핵심기술이나 원료, 고객 등을 기반으로 유가 등 외부 환경에 따른 변동성이 큰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미래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구조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성장 전략 아래 GS칼텍스는 바이오케미칼 분야에서 바이오매스 원료 확보부터 생산기술 개발, 수요처 개발 등 상용화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스케일업 연구를 통한 기술검증 및 다운스트림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GS칼텍스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약 500억원을 투자하여 올 하반기에 여수에 바이오부탄올 시범공장을 건설하고, 전후방에서 원료 및 다양한 응용제품을 담당할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바이오화학 산업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GS칼텍스가 상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이오부탄올은 바이오에탄올에 비해 에너지밀도가 높아 휘발유와 혼합해 사용시 연비손실이 적으면서도, 엔진의 개조 없이 휘발유 차량용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물에 대한 용해도와 부식성이 낮아 기존 연료의 수송 및 저장 인프라를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바이오부탄올은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쓰이는 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잉크, 본드나 페인트 등에 쓰이는 점착제나 반도체 세정제, 식품/비누/화장품 등에 향을 주기 위해 쓰이는 착향료, 혹은 기타 용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어 친환경 케미칼로 주목받고 있다.

GS칼텍스는 2007년 이후 8년여에 걸친 연구개발 끝에 바이오부탄올 양산에 필요한 발효-흡착-분리정제 통합공정 기술을 파일럿 규모에서 확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40건 이상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폐목재, 임지잔재, 농업부산물, 팜 부산물, 사탕수수대, 옥수수대, 거대억새 등 모든 종류의 저가 목질계 바이오매스로부터 혼합당(C5+C6 Sugar)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첨단 생명공학, 대사공학, 미생물 유전자 조작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균주는 이 혼합당의 동시발효를 통한 바이오부탄올이 가능하며, 독자적인 연속형 발효공정과 결합되어 세계최고 수준의 수율과 생산성을 통해 기존 석유계 부탄올 대비 획기적인 원가경쟁력을 기술을 확보하였다.

GS칼텍스는 현재 추진 중인 바이오부탄올 연구🞌개발 활동들이 조기에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신규 아이템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GS칼텍스는 바이오부탄올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분야에서도 끊임없이 연구🞌개발 요소들을 발굴하여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회사의 지속성장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